

Issue Comment

2017. 6. 1

농심 탐방노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우
02. 6098-6689
6414@meritz.co.kr

Comment

2Q17 이후는 국내 라면시장의 가격할인 경쟁 완화 예상. 5/1일 삼양식품이 가격인상에 동참했고 이어서 팔도의 가격인상도 예상되는 상황. 전통 라면의 가격 할인 경쟁 보다는 볶음면류의 신제품 경쟁이 확대될 전망. 이에따라 가격 인상의 피해를 받았던 동사의 주력제품(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등등) 매출 회복 기대감도 발생. 판관비는 전년수준을 유지, 점유율 상승 시 축소도 가능하다는 판단. 2Q~3Q 낮은 베이스 효과에 따른 이익 성장 흐름에 대한 전망 유지. 전반적으로 5월 IR 내용은 긍정적

국내 라면

2Q~3Q는 기저효과 + 볼륨 회복 여지가 남아있음. 매출원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존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 이익 개선하고 신제품 출시로 M/S 방어할 계획. 오뚜기 가격인상은 연말 예상

라면 수요는 연간 1%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 짜장, 짬뽕만큼 임팩트 있는 소재가 없어 작년도 높은 베이스 부담되긴 하지만 일본시장에서 견면 비중이 20~30%인 점 참고해 견면 낼 계획

얼큰장칼국수 월 70억원까지 팔렸고 카레면 등 신제품으로 녹산공장 가동률 최대한 올릴 계획. 하반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제품 출시 전망. 현재 프리미엄라면 월매출 짜왕 20~25억원, 맛짬뽕 7~8억원, 부대찌개나 얼큰장칼국수 10억원, 진짬뽕도 7~8억원 수준. 볶음너구리는 2~3월 85억원 팔고 4월 20~30억원 수준

국내 스낵

허니트렌드 소멸로 기존 스낵 제품으로 매출 회복 중. 신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기라 P와 Q 모두 성장

해외 라면

1Q17 매출 감소했으나 이익은 유지함. 중국 1~2월 좋았으나 3월 사드 영향. 4~5월도 사드 영향권이라 2분기 어려움. 미국은 매출액 하이싱글 성장(달리기준 두 자리수)으로 양호한 성과. 서부 메인스트림 SKU 확대하며 히스파닉 위주 공략. 동부도 채널 넓혀가며 두 자리수 성장 지속 전망

생수(백산수)

1Q17 10% 성장. 생수 수요 계속 10%씩 성장하는 반면 삼다수는 의회 및 환경단체 문제로 캐파 한정돼 동사가 시장 성장분을 가져오는 중. 중국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100억원대 중반이 목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7년 6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우)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